한파 주춤하자…숨막히는 황사·미세먼지 공습

광주·전남 4년만의 겨울 황사에 오늘 최악의 대기오염 예고
내일 오전까지 지속…독감 기승 속 지역민 호흡기 건강 적신호
광주 대기오염 측정소 9곳 뿐…이동측정차량 도입 운영 필요

철 모르는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가 18일 광주·전남지역에 불어닥칠 전망이다. 광주에서 겨울 황사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4년 1월 이후 4년만이다.

이번에 덮칠 중국발 황사는 미세먼지에다 국내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까지 더해지면서 올 겨울 들어 최악으로 나쁜 대기오염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 겨울은 이례적으로 A·B형 독감이 동시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점에서 호흡기 질환에 치명적인 황사와 미세먼지의 유입마저 예고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각별한 건강 관리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 광주·전남은 중국 북부의 사막지대인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황사는 19일 오전까지 약하게 지속된 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에서 겨울 황사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4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황사의 특징은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와 국내 대기오염물질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농도 등급은 네 단계로 나뉘는데, ▲미세먼지(PM-10) 농도 0~30㎍/㎥(좋음) ▲31~80㎍/㎥(보통) ▲81~150㎍/㎥(나쁨) ▲151 이상㎍/㎥(매우 나쁨) 등의 순이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전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였으나 지난 16일 비가 내리면서 등급이 '보통'으로 돌아섰다.

기상청 등은 이날 황사·미세먼지에 이어 국내 대기오염물질까지 더해지면서 광주·전남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광주의 가시거리는 500여m로, 대부분의 전남지역도 7㎞ 이하로 나타나는 등 평소(12~15㎞)보다 훨씬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황사와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면서 시·도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코와 목을 통해 몸 속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춥고 건조한 겨울철엔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주는 체내 면역력이 저하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광주·전남의 대기가 계절의 변화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신음하면서 일기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역 도시대기·도로변 대기질 등 대기오염 측정소는 건국동·두암동·농성동·주월동·송정동·오선동·서석동 등 모두 9곳에 불과하다.

다른 동(洞) 주민들은 측정소가 설치돼 있지 않아 대기오염 정보를 파악하고 싶어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측정소가 없거나 대기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산단·도심 등의 미세먼지 또는 유해가스 등 대기오염도를 자유롭게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도입·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광주시와 협의 중인데, 차량이 도입된다면 미세먼지 측정이 취약한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실상 측정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호남선 설 열차표 예매 17일 오전 광주 송정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호남선 설 열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광 다리 건설 현장서 안전사고
철근 더미 깔려 작업자 2명 사망

안전수칙 준수 여부 조사

17일 오전 9시30분께 영광군 군남면 도장교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김모(66)씨와 주모(60)씨 등 2명이 무너진 철근 더미에 깔렸다. 김씨 등은 사고 약 1시간 뒤 119대원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현장은 위험교량 개선사업의 하나로 영광군 군남면 도장리와 불갑면 순용리를 잇는 도장교에 77.5m 구간을 새로 연결하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숨진 작업자들은 교각 기초를 이루는 철근을 조립하고 있었으며 길이 5.3m·두께 30㎜ 철근 수십 개가 도미노처럼 잇달아 쓰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사는 영광에 최고 30㎝ 폭설이 내리면서 지난 8일부터 중단됐다. 영하의 날씨에 비까지 내리면서 작업이 계속 중단되다가 열흘 만인 이날 오전 작업이 재개됐다.

일부에서는 철근 연결이나 넘어짐 방지 조치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철근 넘어짐을 방지하는 임시 버팀대를 설치하거나 하중을 분산하는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또 날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고 현장은 최근 눈과 비가 내렸고 기온도 크게 낮았기 때문에 양호한 상태는 아니었다. 지난해 6월 착공한 도장교는 현재 공정률 30%로 6월 준공 예정이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전주선 리모델링 공사중 천장 붕괴 1명 사망

17일 오전 10시 38분께 전주시 완산구 4층짜리 건물 리모델링 공사 도중 1층 천장이 무너져 근로자 A(47)씨가 숨졌다. 한 시민은 "큰 소리가 나더니 건물 지붕이 무너졌다. 사람이 깔린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무너진 천장에 깔린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1층에는 근로자 6명이 있었고, 5명은 면적 60㎡ 천정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지게차 주변으로 피했다.

하지만 A씨는 건물 바깥으로 나가려다 천장 잔해에 맞아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리모델링 공사 중 천장이 내려앉을 기미가 보이자 다들 대피했는데, A씨만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급공사 대가 뒷돈 광주시 전 자문관 2심도 징역 3년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65)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7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추징금 6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광주시 정책자문관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사 3곳으로부터 6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광주의 한 문화재단 용역을 수주했다고 속이고 광주시로부터 용역 대금 97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뇌물수수 혐의 김철주 무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광주지법, 2년 6개월 선고

공무원 인사와 관급공사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다시 형량을 정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박준영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형 확정 땐 의원직 상실

2016년 4·13 총선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쓴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54)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회계책임자인 김씨의 형이 확정되면 박준영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유별난 빨간 염색 머리 때문에…상습 절도범 '딱 걸렸네'

쌍나팔

○…머리를 붉은 색으로 염색한 20대 절도범이 독특한 머리색깔 때문에 덜미

○…1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22)씨는 지난 11일 새벽 4시5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병원을 몰래 들어가 입원환자 B씨(여·60)의 사물함에서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상가·병원 등에서 15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는 것.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폐쇄회로)-TV 속 용의자의 머리색깔을 보자마자 예전에 같은 혐의로 붙잡았던 A씨라는 점을 직감하고 검거에 성공.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최고의 투자가치 / 자신있게 추천 / 사정상 급매 합니다.

■ 전북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411-10번지외 10필지
(월정 삼거리 코너, 구 월정초등학교 자리)
■ 대지 5843평, 건물 512평
■ 계획관리지역/ 학교용지 등등
■ 현재 관관농원/ 펜션/ 식당/ 캠핑장 운영중
■ 2차선 도로접, 삼거리 코너, 계곡등 최고의 위치
■ 연수원/ 수련원/ 요양(병)원/ 펜션/ 캠핑장 등등
모든 용도개발 가능
■ 시세 30억, 급매 20억 (일시불 조건)
■ 주인직매 010-3605-5000